

장수군, 특화지구 연계 농촌 재구조화 선도 국토부, 새만금공항 항소 결정

농식품부 정비사업 선정 100억 투입
축산·융복합·마을보호지구 연계
특산물 유통·가공 산업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농촌 활력 도모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서 장수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9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00억 원(국비 50억)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시군이 마련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서로 연계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사업 내용에는 지구별 기반 시설 조성, 환경 관리, 생활 편의 시설과 판매·주거 시설 구축 등이 포함된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4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횡성군(강원)과 장수군(전북)이 2차 공모에서 선정됐다.
앞서 상반기 1차 공모에서는 순창군(전북)과 신안군(전남)이 선정돼, 올해 신규 도입된 사업에서 전국 4곳 중 2곳



장수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29년까지 100억을 투입해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사업계획도.

을 전북이 차지하며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선도하게 됐다.
장수군은 계남면 일원에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세 구역을 연계 조성한다. 축산지구에는 교육·실습시설과 임대·이전축산단지 기반을 마련해 축산업 경

쟁력을 높이고,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레드포드 직판매장 조성 등을 통해 특산물 유통·가공 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빈집 정비와 워터·숙소를 조성해 주민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

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이후 도와 시군이 함께 농촌공간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장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 불복, 상급심 판단 요청
조류충돌·환경훼손 보완 강조
전북도와 공동 대응 계획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 1심 판결에 불복, 2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을 비롯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 지역의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는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이익성을 재차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며 “향후 있을 항소 과정에서 전북도 등 관계기관, 전문

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지난 11일 일부 시민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파괴와 관련한 조사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 문을 열 계획이었지만 이번 1심 판결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춘석 방지법’ 제정 촉구

“주식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필요
기존 제도 감시 기능 미흡”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제2의 이춘석 방지법(주식 거래내역 신고제)’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일 개최한 정기국회의 과제로 이춘석 방지법 제정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이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하는 시험대”라면서 “이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개혁 법안보다는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가 연말 기준의 보유 주식 내역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실제 매매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차명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와 국회 이

해충돌 심사제도도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기존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거래 단위별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과 주식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웅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조사하는 보완책을 입법화하는 편이 좋겠다”며 “제2의 이춘석 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만한 법안을 만드는 편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주식거래내역 신고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서 팀장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지만 매각 신고만을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제도에 허점이 있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남겨두는지 의문이다. 22대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道,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 내년도 실질적 지원책 모색

금융지원·판로 확대 등 정책 점검
공급망 다각화·첨단산업 육성 강조

전북특별자치도가 22일 변화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응반 구성 이후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양국간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경제 관련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시행된 금융지원, 판로 확대, 현장소통 등 관세 대응 지원정책 ▲자동차부품·조선·농식품 등 주력업종의 대응 상황 ▲내년도 핵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급망 다각화와 기업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내년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도는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확대와 자금 지원과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를 통한 판로 다각화 지원, 업종별 수출역량 강화(미래차 부품 전환 및 대체부품 개발 등)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이날 1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북, 맞춤형 케어푸드 메카로”

남원서 미래농업 전북포럼 개최
산·학·연 전문가와 전략 모색

전북도는 24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농업 전북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개인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도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3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박지은 마크로젠 이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개인 맞춤 활용 가능성을 다룬다. 금성정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동향과 유전자·마이크로바이옴 정보를 토대로 한 개인별 건강관리 및 식단 설계, 질병 예방 솔루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배민정 한국식품진흥원 기술혁신처장은 케어푸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활용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외 케어푸드 시장 현황과 주요 기업들의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식품진흥원의 생산·가공·포장 시설과 기술 지원을 활용한 기업별 제품 개발 및 실증 결과를 공유한다.
정도건 전북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전북의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발전 로드맵을 공개한다. 전북이 확보한 대규모 미생물 자원과 전국 최고 수준의 관련 시설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선도기업 3개사 육성, 연관 기업 40개사 확충, 일자리 2,3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대학교 등 산·학·연·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케어푸드 산업화 추진 방안과 지역 특성 연계 전략을 검토한다.



道, 올림픽 유치 응원 ‘대국민 SNS 이벤트’ 3차 돌입

이달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콘텐츠 해시태그와 SNS 게시
2차 이벤트 선 참여 영상 화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국민적 관심과 응원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 중인 ‘대국민 SNS 참여 이벤트’ 마지막 3회차를 시작했다.

이번 이벤트는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되며, IOC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의 슬로건인 “함께 움직이자(Pick Your +1 and Move Together)” 아래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일상 속에서 건강한 움직임을 실천하고 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2인 이상이 함께 운동하거나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필수 해시태그(#LETSMOVE #전

주올림픽유치응원 #OLYMPICDAY #JEONJU)와 함께 개인 SNS에 게시하면 된다. 스트레칭, 산책, 댄스, 러닝 등 가벼운 활동도 가능하며, 게시물 캡처와 참가 신청서(네이버 폼)를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 2회차 이벤트를 운영해왔다.

특히 2차 이벤트에서는 기부천사 선(Sean)이 참여한 응원 홍보 영상이 공개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영상은 좋아요 1만 건, 조회수 5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들였다.

이번 3차 이벤트의 당첨자 추천은 10월 23일에 진행되며, 총 115명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10인 이상 단체 참가자에게는 특별 경품이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jeonbuksta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j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국민적 응원 확산을 위해 ‘대국민 SNS 참여 이벤트’ 마지막 3회차를 시작했다. 사진은 가수 선 개인 SNS의 올림픽유치 응원 이벤트 참여. <사진=전북도>

전북도, 여성 농업인 목소리 청취…정책 체감도 높인다

전북여성농민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돌봄·장비 지원 방안 소개
우수 사례·청년농 경험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2025 전북여성농민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여성농업인 150여 명이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도연합(회장 송미옥)과 도내 8개 시군 여성농민회가 공동 주최 주관한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비롯해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

황양택 농민회 전북도연맹 의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 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오미란 젠더연공동체 대표가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여성농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민선식 전북도 국장이 육아·돌봄 농가도우미 제도,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건강검진 등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 관련 예산 현황을 공유하고, 영농부담 완화를 위한 세심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오은미 도의원은 정책 추진 체계의 제도화와 여성농업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토론회에서는 타 지역의 우수 사례가 소개되고, 여성청년창업농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공유되어 다양한 세대의 농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부안 해나루 가족호텔에서 2025 전북여성농민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송미옥 회장은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여전히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과 일상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 의원·직원 소통·청렴 역량 강화 연찬회

정읍서 22·23일 1박 2일간 진행
JS커뮤니케이션 박정순 대표
염건령 교수 ‘공직 청렴’ 주제 강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은 22일부터 1박 2일 간 정읍 일원에서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한다.

연찬회 첫날인 22일에는 JS커뮤니케이션 박정순 대표가 강사로 나서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조직 내 소통 활성화와 갈등 예방, 신뢰를 높이는 공감적 소통 능력, 도의 리더로서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통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2일에는 염건령 교수가 ‘공직자가 알

아야 할 청렴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염교수는 “청렴은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조직의 경쟁력이며, 실천 없는 선언은 의미가 없으며, 공직자의 청렴은 법률 준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역설할 예정이다.

문승우 의장은 “연찬회가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과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주요 현안을 폭넓게 이해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 소통하며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 쓰레기가 자연분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종이 : 2~5개월

우유팩 : 5년

1회용컵, 나무젓가락 : 20년 이상

비닐봉투, 칫솔 : 100년 이상

스티로폼, 플라스틱 : 500년 이상

이재명대통령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행

23일 유엔에서 기조연설 일정
24일 안보리 공개 토의 주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참석하기 위해 3박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과 김해경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공항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헬리 주한미군대사관 차석 등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22일(현지시간)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과 미 상하원 의원단 점견하고 이어 한인 동포 간담회

회에 참석한다.

이어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의 면담한 뒤에 저녁에는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을 할 예정이다.

또 24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25일에는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한 후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프랑스,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폴란드 정상과 회담을 갖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목소리 듣고 꿈 지켜내야”

민주당 전북, 청년의 날 성명 발표
“창업농·예술인 정책 반영 노력”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예비 청년 농업인,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창업농 초기 진입 장벽, 실습 현장 환경 개선, 민간 공연장 인력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과 만남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부담, 자산 형성의 어려움, 고립과 단절 등으로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 20년간 수도권으로 옮겨간 전북 청년의 규모가 전국 최대치라는 통계는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전북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게 한

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예비 청년 농업인, 청년 예술인들과 만나 창업농 초기 진입 장벽, 실습 현장 환경 개선, 민간 공연장 인력 지원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과 만남을 지속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이 빛나야 대한민국이 빛나는만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철 기자

임실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연대, 시범 선정 강력 촉구

“지역 재건 중요한 전환점 될 것
지역화폐 지금 경제 선순환 효과”

농어촌기본소득 임실군 선정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임실군 선정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임실군의 심각한 인구 감소, 고령화, 청년 유출 등 지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연대는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재건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실군은 대한민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자립경제력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사회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추진연대는 기본소득을 “지역 생존을 위한 긴급 대책이자 주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임실군은 지난 15년 동안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출되며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이 떠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마을에서는 식당, 이마트, 마트 등 생활 필수 서비스가 사라지고 주민들의 기본 편의가 위협받고 있다.

추진연대 관계자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해 작은 상점과 시장을 되살릴 수 있다”며 경제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중기중앙회, 한국경제 구조적 위기 ‘앞장’

23일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 개최...정책 비전 주요 추진과제 소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전국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경제민주화·규제개혁 등 중소기업 경영전략과 미래 비전을 제시한 국내 최대 경제포럼이다. ‘포럼’은 23일부터 26일까지 3박4일 동안 롯데호텔 제주에서 약 4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2025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도전과 혁신, 세계로 미래로!”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포럼은 “중소기업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잠재성장을 하락 등 한국경제 구조적 위기에 중소기업이 앞장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조강연자로 참석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를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포럼 2일차에는 ‘중소기업 미국진출 전략 세미나’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 △바니 리 한미은행장 △박기홍 허브인터내셔널 대표 △스콧 리 LBBS 한인그룹 대표번호사 등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함께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다양한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호성 성남시의료원장 △정경 오페라마 예술경영연구소장 △최성에 HD 행복연구소장 △황창연 성필립보 생태마을 신부 △썬길 역사 스토리텔러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 인사 강연과 모슬포 중앙시장 장보기를 통한 서귀포 지역 복지시설 기부 등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나눔도 실현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시대적 현안에 대응하며 해법을 모색해 온 대한민국 대표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 포럼은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다채로운 강연과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참

석한 CEO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통찰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농협전북본부는 전북 농축협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25년 하반기 농축협 건전결산'을 다짐하는 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전북농협, 농축협 하반기 상임이사 건전결산

금융업 추진 방향 토론도

농협전북본부(총괄본부장 이정환)는 전북 농축협 상임이사를 대상으로 '25년 하반기 농축협 건전결산'을 다짐하는 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5년 하반기 농축협 사업결산방향과 세계경기 동향 및 금융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농축협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농민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경영위기 극복, 실익증진 등 본분을 다하기 위해 결의했다.

이어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란 의미의 '농심천심운동' 확산의지를 다졌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목표한 바를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기초가 되는 건전결산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검역본부 ‘수입 농축산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병행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차단 내달 10일까지 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검역본부의 농축산물 검역 강화는 주요 해외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10일까

지다.

검역본부는 먼저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 검역에서는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강도높은 검역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더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

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동시에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 및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

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및 집역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병행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우리 농축산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명절 물가 안정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 최선”

한가위 큰장터서 농심천심 홍보·농축산물 직거래 판매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2025 전북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해 도내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와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농심천심운동'의 취지에 맞춰 농가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전북농협은 익산원에농협·고산농협·무진장축협이 참여해 사과·배·곶감·사인머스켓·한우·표고버섯 등 제수용품

을 중심으로 시중가 대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정환 본부장은 “농심천심은 농부의 정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잇는 ‘상생의 약속’이다”며 “이번 한가위 큰장터는 지역 농업인이 정성껏 키운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고, 농가엔 실질적 소득을 보태는 자리다. 전북농협은 전북자치도·지역 농·축협과 손잡고 명절 물가 안정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협은 '2025 전북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해 도내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와 농심천심운동 홍보관을 운영했다.



농관원 전북지원, 전통식품 가치 경험 행사 열어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비즈니스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체험행사를 22일 개최했다.

체험행사는 젊은 세대가 우리 전통식품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익산시 소재 '황수원 전통식품'에서 진행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주요 내용은 △막장·된장꾸기 만들기 △전통식품 발효원리 설명하며 전통식품의 산업적·문화적 의미 등이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에는 제조·가

공·조리 등의 고유의 맛·향·색을 내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생산자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는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김민욱 농관원 전북지원장은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청년들이 전통식품의 우수성과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배터리 코리아 2025 참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홍보부스를 COEX 1층 그랜드볼룸에서 운영했다.

홍보부스 운영은 지난 9월 22일 '배터리코리아 2025(BATTERY KOREA 2025)' 참여에 따른 것으로 이날 이차전지 산업 50여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스마트 제조 장비, 전고체 배터리 기술, ESS 및 V2G 인프라 등을 전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가속화에 따른 배터리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AI 융합 기술 등이 선보여졌다.

이광현 (재)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 사업단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광물·가공부터 소재, 셀,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밸류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배터리코리아 2025'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이차전지 산업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

동시에 K-배터리 생태계 완성에 전북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대외에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김영태 기자

LX, 경영위기 속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반부패·청렴정책 실행 강화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사장 어명소)가 경영위기와 관련된 부패 취약분야의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

LX공사는 22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반부패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LX 청렴인증제도' 시상식을 진행했다.

청렴인증제도는 LX공사의 전 부서에서 경영위기 속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추진한 청렴정책 중 두 차례의 심사를 통해 올해 총 22건이 인증됐고 이 중 8건이 우수 청렴정책으로 인증됐다.

주요 우수 청렴정책으로는 △청렴 기반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글

로벌 청렴 파트너십 프로그램 △CS & 청렴 모니터링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으로 경영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LX공사는 앞으로도 비상경영 반부패추진단 회의를 통해 경영위기와 관련된 부패 취약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출하고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은 “LX인이 주체가 되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청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고강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반부패·청렴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정상화의 길에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조달청-이노비즈, 기술기업 성장 논의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지역 혁신형 중소기업 성장 위한 방안을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임원들과 논의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를 위해 22일 2층 회의실에서 전북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조달시장 진입·규제 완화 방안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간담회에는 김항수 청장, 전북지방조달청 관계자,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장, 공공조달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3월 1차 간담회의 건의사항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추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공공조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념우표’ 발행

내달 17일까지 예약 접수

전북지방우정청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념우표' 예약 접수가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최동원 청장은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소재로 한 특별한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념우표에는 △공식포스터 △대회로고 등이 이미지에 포함되도록 제작됐다.

특히 전북지방우정청은 이번에 발행되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기념우표를 통해 드론축구의 발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우표 예약은 온라인 홈페이지(www.koreapost.go.kr/561/index.do)를 통해 면 된다.

예약된 '나만의 우표'는 10월 29일부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최동원 청장은 “이번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널리 홍보하고 드론축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표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우표에 담아 지역사회 홍보와 우표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최성민 기자

익산시, 11월 말까지 수확철 ‘농기계 임대 특별근무’ 돌입

익산시가 수확철 농업인의 적기 영농을 돕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특별근무에 돌입했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를 토요일에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무는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임대사업소는 함열분소, 동부분소(금마면), 남부분소(오산면), 북부분소(망성면)로, 사업소별 2명씩 근무조를 편성해 토요일에도 농업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추석 연휴인 10월 6~9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경영비 절감과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이바지하며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는 5,016농가가 총 7,181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했다.

특히 올해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새롭게 문을 연 북부분소는 북부권 농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여, 권역별 균형 있는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요일 특별근무 운영으로 농업인들이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업인의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나포면 보건지소 신청사 지역사회 건강관리 중심 기대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최상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나포면 보건지소 신청사 개소식이 22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는 지역주민과 보건 관계자, 군산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보건지소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하고, 지역 보건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눴다.

개소식 후 건강 상담, 혈압·혈당 측정 등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건강 부스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문을 연 나포면보건지소는 지상 2층, 연면적 약 352㎡ 규모로 내과진료실, 한방진료실, 처치·소독실, 다목적실 등 다양한 보건 서비스 공간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신청사는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대체해 신축된 것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보건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다해 군산시보건소장은 “새로운 나포면보건지소는 단순한 진료 공간을 넘어, 주민 건강을 지키는 거점이자 지역사회 건강 관리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군산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신규임용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군산시가 22일 군산 청년뜰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날 김혜영 강사(現 군산성폭력상담소 소장)는 “같이! 함께! 성인지 감수성 UP”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직장 내 사례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역할에 대해 설명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김현석 복지교육국장은 “우리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인식을 확립하고, 존중과 배려의 직장문화 실천에 앞장서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오는 10월에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천 달하다리, 문화공간 ‘탈바꿈’

9경 벽화·LED 조명 쾌적·안전한 환경 제공 문화 담은 명소로

정읍천 달하다리가 낮에는 벽화로, 밤에는 조명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정읍시는 최근 달하다리 교대 벽체를 활용해 ‘정읍 9경’ 가운데 내장산국립공원, 구절초 지방정원, 정읍사공원과 달빛사랑숲,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무성서원, 용산호 등 6곳을 주제로 한 벽화를 조성했다.

또 LED 조명을 보강 설치하며 산책로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콘크리트로 마감돼 단조롭게 보이던 다리 벽체는 정읍의 자연과 문화를 담은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낮에는 정읍의 대표 명소를 담은 벽화가 산책객들의 눈길을 끌고, 밤에는 한층 밝아진 조명이 어두운 길을 밝혀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공간



정읍천 달하다리가 낮에는 벽화로, 밤에는 조명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사진=정읍시>

으로 변모했다.

특히 벽화는 정읍의 아름다운 경관을 생동감 있게 표현해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또 다리 하부에 설치된 LED 조명은 산책로를 환히 밝혀 정읍천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학수 시장은 “달하다리 벽화와 경

관조명은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자 관광객들에게는 정읍의 매력을 알리는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읍천을 중심으로 걷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청년 목소리 정책 반영 확대

‘청년정책 제안소’ 운영 제안 검토·정책화 추진

익산시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강화한다.

시는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 ‘청년정책 제안소’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정책 제안소는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플랫폼이자 소통 창구다.

아이디어 제안은 상시로 가능하고, 게시된 제안은 20일간 공감 기능이 부여된다.

공감 수가 50건 이상인 제안은 청년정책 실무협의체의 공식 검토 대상이 된다.

이후 소관 부서가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연말에는 최우수·우수 제안을 선정해 청년참여 포인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제안소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실무협의체와 연계해 청년시정을 실질적인 시정참여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 청년은 “평소 느끼던 지역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공감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겨 기대된다”며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전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청년의 목소리가 익산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7~28일 ‘친환경 레이크마켓’ 열려

직거래·환경친화형 체험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

군산시친환경농업협회가 주최하는 농산물 판매 행사인 ‘친환경 레이크마켓’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군산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식 및 만들기 체험, 농산물 꾸러미 응모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방문객들은 친환경 인증 농가의 쌀, 버섯, 고추, 참깨, 콩, 미숫가루 등 다양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판매 농산물 모두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배돼 안전하고 건강한 품질

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친환경 식재료를 활용한 인절미·김치·고추장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주최측은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와 함께 주말은파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진완 군산시친환경농업협회장은 “이번 레이크마켓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군산 시민과 소비자 여러분께 직접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 행사를 기점으로 군산시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상기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장도 “레이크마켓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



접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행사”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지역 서화가 소공 이명우 특별전시

시립박물관서 12월 7일까지 작품도구총 33점 전시

정읍시립박물관이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역 서화가 소공 이명우 선생을 조명하는 전시 ‘무언의 가르침, 달마’를 연다.

소공 이명우 선생은 1923년 갑곡면 화봉리 감미마을에서 태어나 불화의 대가 김일섭 스님에게 사사받았다. 이 후 1979년 일본 오사카 달마와 전사를 시작으로 대만역사박물관, 주일한국문

화원 개원 초대전, 신익희 선생 유물전 등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전시 활동을 이어왔다.

그의 달마도는 위엄보다 온화함, 두려움보다 자비로움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거집없는 불놀림 속에서도 파스한 눈빛과 굳건하면서도 인자한 표정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이번 전시는 후손이 보관해 온 작품과 그림 도구 등 총 33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정읍 출신 서화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

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전시는 소공 이명우 선생이 평생 화폭에 담아온 무언의 가르침을 체감할 기회이자, 정읍 서화가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정읍시립박물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립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추석 앞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29개 다중이용시설 등 정비

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과 귀성객 맞이에 나섰다.

익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하천·도로·시가지 전역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29개 읍면동 다중이용시설, 버스정류장, 골목길 등 청소 취약지를 비롯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볼거리·먹거리·숙박시설 주변을 집중 정비한다.

이번 활동에는 공무원과 자원봉사단체, 지역 자생단체, 유관기관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여해 도심 곳곳을 말끔히 단장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민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

체와 특별청소반을 운영해 주요 가로변 환경정비와 신속한 쓰레기 수거에 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시는 지방도와 시도 등 약 180km 구간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노건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도로변 제초, 잡목제거, 인도 제초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교통 시야 확보와 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 안전성도 높인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익산을 찾는 모든 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천, 도로, 시가지까지 전방위 정비에 나섰다”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웃음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지역 명칭의 뿌리 ‘우물’ 지킨다

전통 우물 체계적 보존·정비

정읍시가 지역 명칭의 근원이자 생활사적 가치를 간직한 전통 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한다.

시는 ‘우물 정(井), 고을 읍(邑)’이라는 지역 명칭의 상징을 지켜내고 향토 자원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3년 9월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300여 개의 우물이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보존·관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정비 대상은 입암면 봉양마을 등 5개소로 △봉양마을 우물 지붕 설치 △조소마을 우물 덮개 교체 △상하마을 우물 주변 조경 정비 △현암·표천마을 우물 구조물 보강 등 정비가

진행된다. 시는 각 우물에 안내판을 설치해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소개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우물을 보존해 생활사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우물을 상징적인 향토자원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통과 문화를 담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물은 지역 명칭의 뿌리이자 주민 생활과 문화를 담아낸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정읍의 전통과 향토적 가치를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대 반려동물 한마당, 27일 익산서 개최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익산에서 열린다.

익산시는 ‘2025 전북대학교 반려동물 한마당’이 오는 27일 오후 1시 전북대학교 익산특성화캠퍼스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장에서는 △명냥 그림책 만들기 △발도장 추억액자 △반려동물 건강검진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 반려동물 산책룩 패션쇼와 OX 퀴즈, 사진 콘테스트 등 무대 프로그램이 마련돼 현장 열기를 더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22일 군산시보건소는 야외활동이 늘고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시는 2024년 군산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92%가 가을철인 9~11월에 발생했으며, 환자의 75%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밝은색의 긴소매·긴바지, 양말

착용하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 및 의복 세탁하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해 치료받기 등이 있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며, “반겨들더라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야외활동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반드시 활동 이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 선정

전통산사고택중가집 활용사업 등 5개 분야 국가유산 가치 확인 성과

고창군이 2026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에서 총 5개 분야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억25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선정 사업은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고택·중가집 활용사업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등이다.

▲3년 연속 선정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생생고창, 고택 함께)'=고창농악을 주제로 공연, 교육, 체험, 숙박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상설극단 공연, '농

악 사계절 굿스테이', '상생×재생 프로젝트', '생생 퍼레이드' 등을 선보인다.

▲2년 연속 선정 '고택·중가집 활용사업'=국가민속유산 신재효 고택을 활용한 '신재효 고택으로의 초대 - 전통과 흥, 흥보가의 울림'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판소리 마스터클래스, 창극 공연, 플로깅 탐방 등 지역성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천년의 숨결 선운사)=선운사의 자연과 역사자원을 활용해 인경체현, 천연 염색, 인문학 강의, 영산전 벽화 그리기, 동백숲 보호 활동 등 치유·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규 선정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고창농악, 미래를 갈아)'=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장단 따라 보물찾기, '마을굿아 학교가자', 나의 소고·나의 춤 만들기, '꿈꾸는 당산나무' 등으로 학생들이 농악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

▲신규 선정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무장읍성 칠거리당산 용당기놀이)'=용당기놀이는 칠월칠석에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전통 민속놀이로, 이번 사업을 통해 조사·연구, 주민 인터뷰, 기록화, 학술대회 등을 거쳐 지역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은 고창군이 지닌 유무형 국가유산의 가치가 다시 한번 확인된 성과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체험·교육형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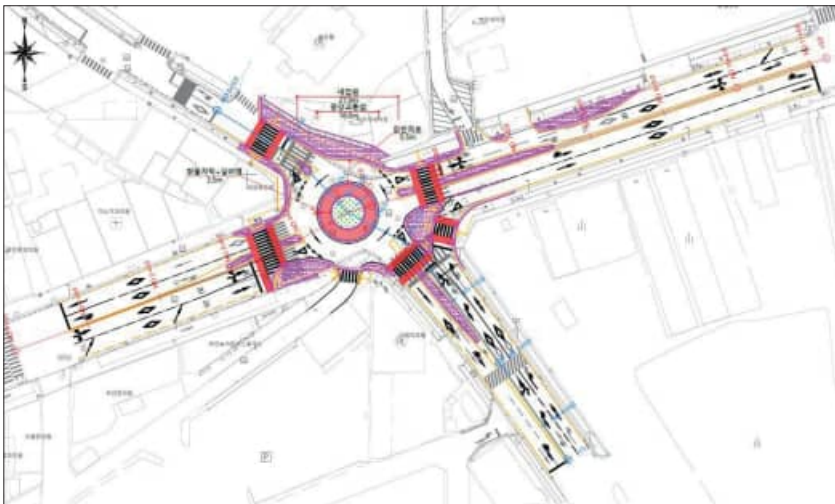
부안 농어촌버스 회전교차로, 10월 완공 박차

교통편익 증진 사고 사전 예방 기여

부안군은 회전교차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총사업비 7억 3000만원을 투입해 부안 농어촌버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해 5지 1차로형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사업 완료해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안 농어촌버스 교차로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혼잡구간이었으나 오는 10월 5지 1차로형 회전교차로 완공시 지역주민 및 탐방객 교통사고 사전예방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군은 회전교차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주민 및 탐방객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교차로를 개선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로 친

환경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부안이 안전한 교통 선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소비쿠폰 지급 시작

내달 31일까지 동시 지급 지역경제 활력 기대

고창군이 10월 31일까지 '군민활력지원금' 20만원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의 동시 지급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이 지원하는 군민활력지원금은 지난 15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다.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 원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군민활력지원금은 정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해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전북현대와 손잡고 지평선축제 홍보

정성주 시장 '파트너데이' 관중들에 축제쌀 알려

정성주 김제시장이 전북현대와 손잡고 '김제파트너데이'를 통해 지평선축제와 김제쌀을 홍보했다.

22일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김전상무와 전북현대 30라운드 경기에 참가해 '김제파트너데이'를 진행했다.

시는 이날 홍보부스를 마련해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김제지평선축제'를 알리고 이와 함께 '김제지평선쌀', '쌀 마스크팩' 등을 팬들에게 선물했다.

홍보부스에서 김제지평선축제 SNS 구독 이벤트와 김제시 SNS 구독이벤트, 고향사랑기부로 이날 경기를 찾은 2만여 관중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전북현대와 손잡고 '김제파트너데이'를 통해 지평선축제와 김제쌀을 홍보했다. <사진=김제시>

특히, 이날 시는 20kg 쌀 20포를 전북현대 선수단에 기부했으며 전북현대는 기증받은 쌀 20포를 김제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다시 기증했다.

정 시장은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전

북현대가 김제시와 함께 김제파트너데이를 진행하게돼 김제지평선축제 역시 전북도민과 전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30일부터 벽골제 ‘입장료 무료화’

관광 활성화 도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오는 30일부터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시는 사적 111호인 벽골제관광지를 지난 2018년 4월부터 관외 거주 입장객에 대해 시설관리를 위해 성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12세 이하 어린이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 왔다.

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및 관외 거주 시민 1,749명을 대상으로 입장료 무료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9%가 입장료 폐지에 찬성해 폐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는 입장료를 폐지하기 위해 지

난 7월부터 8월까지 시의회 의견수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장료 폐지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18일 김제시의회에서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폐지'안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입장료 무료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는 폐지되고 관광지 내 체험시설은 기존대로 유료화로 운영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무료화를 통해 체험시설, 상가 등 이용이 활성화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단지 내 시설물을 정비하겠다"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주요 현안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22일 오전 10시,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9월 의원간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 20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홍보축제실로부터 '제27회 김제지평선축제 연출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 예정인 지평선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문화관광과가 보고한 '김제온천관광지 민간 호텔 투자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

업의 실효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고, 회계과가 상정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특히 △환경과의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사업' △공원복지과의 '신풍동 역전주변 공원 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총력'

지역공동체 지속 가능성↑

고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국회의원, 주민구 고창군의회 의장, 전북도의회 김만기·김성수 도의원 등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고창군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개 군 내외로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회상생품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고창군민 전체(5만800명 기준)에게 지급되면 2년간 1829억원이 지역에 순환하게 된다.

이는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부양 효과로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인 고창군을 지키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반드시 유치해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는 2026년도 농업인 교육과정 개설에 앞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농업인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역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부안군농업인대학 △품목별 맞춤형교육 △전문농업기술교육 △새해영농기술교육 등 4과정 농업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수요조사에서는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접수하고 수렴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속 발굴 운

영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 조사는 군청 및 기술센터 홈페이지나 각 읍면 농민 상담소에 비치된 수요조사 리플렛을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모든 교육은 농업인 경영개선과 소득 향상에 목표를 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개설되며, 교육수요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진행해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해 꼭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반부패 청렴 교육 “사적이익 추구행위 엄단”

고창군이 지난 19일 동리국악당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군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고창군 소속 공무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김세진 원장(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을 초청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공직자의 청렴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특히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갑질 금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강의를 참석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청렴 정신에서 나온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공무원이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적극적으로 친절한 대군민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농업기치창조…후계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가족마음대회성황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후계농업경영인의 화합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위한 각오를 다지는 '제32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가족마음대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족마음대회는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 야외행사장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과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시상과 한농연 김제시연합회 박인규 회장의 대회사, 내빈의 격려사 및 축사로 진행됐으며 이후 체육행사와 문화활동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마음의 시름을 털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후계농업경영인 김제시연합회 박인규 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기후변화 등 이상기후 속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농업을 유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왔으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삼아 현실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농업인이 되자"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작년에 이어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김제 농업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후계농업경영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시 현실에 맞는 농업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가족통합프로그램 ‘소통 하우스’ 2차 운영

부안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0일 가족통합프로그램 2차 '소통 하우스'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학부부 간담회와 가족구성원이 한 팀을 이뤄 가족소통활동(베이킹&떡만들기)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도모하고, 가족 간 소통으로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집이 아닌 곳에서 아이의 활동 모습도 확인하고, 자녀와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게 돼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긍정적인 교감을 나누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시, 어민공익수당 26일까지 지원

**어업 공익활동보상·소득안정도모
1인 경영체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2인 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30만원**

남원시에서는 어업인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어민공익수당)'을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민공익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촌 환경 보전 등 어업인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

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급금액은 어업경영체 기준 1인 경영체는 연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어민들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 지원과를 방문하여 지급 절차를 완료한 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남원시는 지급 기간 동안 원활한 수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편이 없도록 현장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민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관리와 환경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제6회 한국문화가치대상서 우수상 수상

**공연·교육·역사아우른 성과 인정
'군민 문화접근성 높여' 평가
지역 고유 문화자산 활용 '주목'**

순창군이 제6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공연예술 및 생활예술, 문화유산·역사, 문화교육 등 3개 핵심 문화사업이 지역 정체성 강화와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문화 핵심가치 실현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총사업비 1억 750만 원을 투입해 주요 관광지 버스킹 공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생활문화 예술동호회 상설공연, 관광지 국악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지역 예술인 133개 팀, 총 744명이 참여했으며, 누적 관람객



순창군이 제6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순창군>

3,560명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제28회 삼인문화 기념행사, 가인 김병로 선생 서세 60주기 추모식 및 학술대회, 여암 신경준 선생 선양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조명하고 활성화에 힘쓴 점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관광지 버스킹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고, 9개 작은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읍·면 단위까지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한 점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며, "순창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개시

**가구 소득 하위 90% 1인 10만원
사용 기한 오는 11월 30일까지**

완주군이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앞서 시행된 1차 소비쿠폰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2차 지급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하위 90% 군민으로,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군민 1인당 지급 금액은 10만 원이다.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되며, 완주군 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과 일부 면 지역 하나마트,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오프라인은 읍·

면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은행 영업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돼 혼잡을 최소화했다. 신청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소비쿠폰이 군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불편 없이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개 법인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왜거'

**지리산묵가·하이오백 2개소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 기대**

남원시는 2025년 제3차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심사 결과 지리산묵가, 농업회사법인(유)하이오백(이하 '하이오백') 2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국적으로 50개 법인이 새롭게 지정됐다.

지리산묵가(대표 소성진)는 3대째 사업을 살려 국내산 도토리를 원재료로 전통 묵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신진식인장수상과 쌀묵·도토리불고기 특허, 국제식품안전관리인증과 비건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온라인 판로 확대에 힘써왔으며, 지역 농가와의 계약 구매를 통해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하이오백(대표 허정진)은 2023년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김부각을 생산하며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제공에도 나서고 있다. 고령지에서 생산한 김부각은 장흥무산김, 현미유, 참쌀 등을 원재료로 하며, 최근에는 메밀부각과 팥조각 등을 선보여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시는 국비 예산 축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로 지원과 마케팅 교육에 집중해 사회적기업 자생력 강화를 도모해왔으며, 이번 인증 성과가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
순창군에 재해구호물품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총재 박성춘)는 최근 순창라이온스클럽(회장 조길훈)으로부터 기탁받은 재해구호물품 100세트를 순창군에 전달했다.

박성춘 총재는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와 순창라이온스클럽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재해에 취약한 지역 주민들과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대학생 천원아침밥 '2학기도 책임진다'

**우석대서 하반기 첫날 행사
농가 발골 연계 로컬푸드 공급**

완주군이 우석대학교 교양관에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하반기 첫날 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22일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교양관에서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하반기 첫날 맞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박노준 우석대 총장, 김정은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대표 등이 참여해 바쁜 학업과 생활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대학생들에게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용한 아침식사를 직접 전달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하반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함께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에게 제공될 메뉴는 상반기 추진된 만족도 조사를 반영해 지역산 쌀을 활용한 덮밥을 다양화하고, 과일 등 영양가가 높고 건강한 간편식 식단으로 구성한다.

특히, 직매장을 운영 중인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신선한 농산물을 기부하고자 하는 농가를 적극 발굴 연계해, 사업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군은 상반기 동안 진행된 사업을 도매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하반기에도 도시락의 품질을 유지하고, 현장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등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근로환경 개선·안전대책 논의**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최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분기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전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공설공원묘지 4묘역 경사면 토사 유실 방지를 위한 옹벽 보강 공사 추진 등 근로환경과 시설안전 전반에 걸친 안전이 다뤄졌다.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상담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향후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묘역 옹벽 보강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희수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복지와 시설의 안전성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YWCA상담소, 가족센터와 이주여성 보호 협약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복지
상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남원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22일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강화 및 기관 상호 협력 구축을 위해 남원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남원 지역 내 증가하는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것으로, 통역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했다. 이 외에도 범

률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남원YWCA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장신화 소장은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과 김미옥과장은 "앞으로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연계할 계획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자원발굴 등 다방면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ebts협동조합 대구 팔공산 환경정화 산행

소셜벤처기업 ebts협동조합(회장 이승원)·남원김종관 지구장 등 조합원 40명은 지난 19일 8대명산인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ebts 교육센터를 찾아 우거진 잡초제거와 팔공산 주변에 대청소를 하는 등 깨끗한 국토대청결을 하였고 팔공산 정상을 향한 등산이 이뤄졌다.

정상에서 노인환조합원의 '독도는 한국땅' 하모니가 연주에 맞춰 70~80대 시니어들이 독도사랑플래시몹을 멋지게 선보였다. 애국기업 ebts는 나라사랑 독도사랑을 전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며 홍보에도 앞장서는 금지와 자부심으로 ebts 신주유천하 앱을 전국에 홍보하며 배려를 실천하는 배달주유를 하는 국민기업으로 26년 상반기까지 3,000개의 독도사랑주유소를 확보해 따뜻한 기름 배달 서비스를 위해 APEC 경주정상회의에 앞서 경주독도사랑휴게소에 독도조형물과 독도전시관을 설치해 독도를사랑하는 국민교육장으로 활용하며 남원에도 지리산연수원을 설치하여 호남지역을 위한 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기자

순창군, '전북 로컬 트래블 마켓'서 지역 관광 매력 알려

**도·군산시 공동 주최 박람회 참여
장류축제 소개·특산물 시식 등 진행**

순창군이 지역 고유의 매력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로컬 트래블 마켓'에 참가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규모 지역 관광 박람회로, 도내 각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고유의 관광 자원과 축제를 소개하고, 관광 정책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순창군은 대표 관광콘텐츠인 '순창장류축제'를 비롯해 주요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지역 특산물인 고추장을 활용한 시식 및 체험 행사를 함께 운영해 현장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정보 제



순창군이 지역 고유의 매력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로컬 트래블 마켓'에 참가했다. <사진=순창군>

공을 넘어, 방문객이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오감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순창의 관광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순창의

관광 매력을 보다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순창을 찾는 발길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고창 출신 다고내푸드 김강웅 대표, 추석선물세트 100개 기탁

다고내푸드 김강웅 대표가 고창군청을 찾아 추석선물세트 100개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식에서 다고내푸드는 추석선물세트 100개(300만원 상당)를 기탁하였고, 전북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강웅 대표는 고창군 무장면 성내리 출신으로 현재 익산에서 소스전문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강웅 대표는 매년 고창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이웃돕기성금 기탁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기탁식에 참여한 김강웅 대표는 “고창에서 나고 자람으로써 고창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무주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영화관서 영화 ‘쫄비탈’ 단체 관람

무주군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 580명을 대상으로 영화 관람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지회장 이광부)와 무주반딧불시니어클럽(관장 김도현)이 함께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이번 행사는 문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치유와 사회적 교류의 장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일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580명이 참여해 무주산골영화관에서 최근 개봉작인 한국영화 ‘쫄비탈’을 관람했다. 김 모 어르신(79세, 무주읍) “영화관이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시간 내서 오기가 망설여졌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보니까 젊을 때 생각도 나고 좋더라”며 “이렇게 길을 뚫으니 어울려서 자주 와 봐야겠다”라고 말했다.

한 모 어르신(85세, 적상면)은 “일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웃는 일도 많아지고 말도 많이 하게 되니까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 걸 느낀다”라며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희오 기자

농협중앙회 장수 출신 임직원, 2천만원 기탁

누적 4천만원 넘어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는 지난 19일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현장에서 ‘농심전심 운동’의 일환으로 장수 출신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2천5만 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는 허용준 농협경제지주 경제지원부장, 장길환 NH농협은행 여신기획부장, 정영선 경영감사국장, 김준오 영업채널전략국장, 이용기 ESG전략팀장 등 역대 장수군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장수 출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장수 출신 농협 임직원들이 장수군에 기탁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4천85만 원에 달한다.

이번 활동은 장수와의 끈끈한 연을 이어가는 동시에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와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농업·농촌 가치공감과 참여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엘디마트 안정남 대표, 정읍시에 1천만원 기부

“고향 학생들 응원합니다”

엘디마트 안정남 대표가 지난 19일 고창 정읍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과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안정남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부를 이어가며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매년 어린이날과 성탄절에 정읍지역 어린이들에게 선물 꾸러

미를 전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함께해 왔다.

안정남 대표는 “고향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안정남 대표의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나눔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주민 복리와 학생들의 꿈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완주 송광사,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 성황

대한불교조계종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스님)가 지난 20일 송광사일원에서 2025년 송광백련 나비채 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나·비·채’ 정신은 ‘자비를 나누고, 욕심을 비우고, 지혜를 채워 이웃과 행복한 삶을 살자’는 의미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사찰음식 만찬과 오케스트라 공연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유익식 완주군의회위원장도 참석

해 지역 주민들과 축제의 의미를 나눴다.

공연은 송광사 경내에서 펼쳐졌으며, 오케스트라 코리아콰의 연주와 피아니스트 송영민, 카운터테너 이희상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무대를 선사했다.

송광사 법진스님은 “지혜와 자비를 나누고, 욕심을 비우며, 다시 지혜와 자비로 채워가는 것이 행복의 삶”이라며 나비채 정신의 의미를 강조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추석명절 온정나눔 꾸러미’ 행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지역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이 가득 담긴 한가위 꾸러미가 제공된다.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22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명규 전 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전석진)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추석명절 온정나눔 꾸러미’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생필품 꾸러미를 정성껏 포장해 34개 동 주민센

터에 배부했다.

400개의 온정 나눔 꾸러미는 곰탕과 김, 참기름, 각터슈, 보습크림 등 14종으로 구성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산 제품도 일부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

34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정성으로 포장한 꾸러미를 각 동에서 발품한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추석 인사와 함께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정혜민 기자



부안군 산림조합, 취약계층에 150만원 상당 현물 기탁

부안군 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2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정)에 150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탁 물품을 활용해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등 15가구를 선정, 과일과 국거리 재료 등을 담은 1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세트를 마련해 오는 10월 2일 직접 방문·전달할 예정이다.

오세준 조합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안군 산림조합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유)두드림 농업회사법인, 익산 춘포면에 백미 기탁

명절을 앞두고 익산시 춘포면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 춘포면에 위치한 (유)두드림 농업회사법인(대표 박도영)은 22일 춘포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백미 10kg 100포를 기탁했다. (유)두드림 농업회사법인은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선별·판매하며, 매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도영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백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춘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곽경원 춘포면장은 “(유)두드림 농업회사법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시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을

산불 예방 수칙

1.

쓰레기 소각 금지

2.

입산 통제 구역 안내 준수

3.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4.

흡연 금지

〈一事一言〉



김건희가 살았던 ‘타인의 삶’(2)

송요훈
전 MBC 기자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1년이 조금 지난 2023년 9월, <오마이뉴스>에는 ‘고등학생이 손꼽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네 가지’라는 기사가 실렸다. 대통령 윤석열에게 잘못된 게 전부이지만, 그래도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업적이 있을 것이니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반어법의 기사였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우선,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인 서울대 법대의 수준이 ‘저 모양’이란 걸 몸소 보여준 거라며, 서열화한 학벌 의식을 약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니 서울 법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고,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들이 알박한 법 지식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와 정적을 곱하는 자들이라는 ‘법부자리의 민낯’을 보게 되었으니 그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이며,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는 허약한 제도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라고 판단다.

지금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인 건, 기성세대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에까지 오른 최고 엘리트라면 더 따져볼 게 없다는 생각으로 윤석열에게 표를 몰아준 결과라는 것이 그 고등학생들의 진단이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통찰에선 고등학생들의 예리한 통찰에 박장대소하였으니 민주주의의 취약함과 어른들의 ‘문지마 투표’를 간파한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선 뭉치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꾼 김건희

는 ‘타인의 삶’을 살기만 한 건 아니었다. V0 김건희는 V1 윤석열을 조종하여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기득권층 타인’들의 행태를 가감 없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드러내어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다.

윤석열은 사실상 여론 조작을 통해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고 기득권 정당에선 여전히 공천을 사고판다는 걸 보여주었다. 정치와 종교가 헌법으로 분리된 나라인데, 윤석열이 당선된 그 대선에선 무속신앙만이 아니라 통일교와 신천지와 대형교회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걸 보여주었다.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근사한 간판 뒤에선 뇌물을 주고 인사 청탁을 하고 이권에도 개입하고 관직을 사고파는 매관매직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었다.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금거북이만 뇌물인가. 자리만 주면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충성 맹세가 있었다면 그 또한 무형의 뇌물이 아니겠는가.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을 지키는 것이 설립의 목적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의 디올백에 면죄부를 발부한 행위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위원장이 임명권자인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기이고 절친이라서 그랬을까?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을 막아야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인권위원회에 차별주의자를 임명한 이유를 또한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 방통위원장에 국

우성향의 인물을 임명한 이유를, 독립을 기념해야 할 독립기념관에 친일 성향의 뉴라이트 인물을 임명한 이유를, 충성 맹세라는 무형의 뇌물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열거하다 보면 숨이 찰 정도인데, 새벽까지 술에 찌들어 있었다는 대통령 윤석열에게선 그 모든 걸 챙겼을 부지런함을 찾아볼 수 없으니 자기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흉내 내던 ‘V0 김건희’를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죄가 태산 같아서 몇 삼을 퍼서 V1에게 떠넘긴다 하여 한강에서 물 한 컵을 뜬 것만큼이나 줄어든 티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김건희에게 과(過)만 있는 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공(功)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윤석열 치하의 검찰은 ‘친윤’ 아닌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저승사자였으나 김건희에게겐 꼬리를 살살 흔드는 애완견이었는지라 양심이 있는 검사라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으니 그건 순전히 김건희의 공(功)이다. 탐관오리들이 득세하던 가렴주구의 시대애나 있었던 때 매관매직이 기득권 계층에선 아직도 살아 있다는 걸 보여주었으니 그 또한 김건희의 공(功)이다.

공부 잘하고 많이 배워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의 부도덕하고 몰양심에 물염치한 얼굴을 보게 되었고, 뭐니 뭐니 해도 고등학생들도 간파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취약하다는 걸 알게 해주었으니 그보다 더 큰 공(功)이 있겠는가.

타인의 삶을 감시하다 정의로 운 삶에 감화된 영화 속의 비밀경찰은 지위를 잃었지만 인간의 얼굴을 되찾았다. 이름 바꾸고 얼굴 바꾸고 경력을 세탁하여 타인의 삶을 살았던 김건희는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타인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길이 열릴까’ 하며 열녀가 되더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며 직녀가 되었다가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하며 철 지난 유행가 읊어대는 삼류시인이 되기도 한다.

철창에 갇힌 김건희가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둘 일은 아니다만, 고등학생들도 간파했던 것처럼 어른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나라가 ‘요 모양 요 꼴’이었다는 걸 그 어른들이 깨닫고 각성하게 된다면, 그 또한 ‘타인의 삶’을 흉내 내던 김건희 덕분에나 나중에 판사가 판결문을 쓰면서 김건희의 형량을 감해주는 작량감경의 사유로 삼더라도 나는 그 판사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만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한·미 관세 협상에 전북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돼야

한·미 간의 통상 협상이 상식을 벗어난 미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로 난항을 겪으며 전북 수출기업들의 불안감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워 한국에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협상 타결 과정에서 도내 자동차·조선·농식품 등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은 전북 수출기업들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무대다. 따라서 이번 협상 결과가 자칫 일방적인 양보로 귀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 기업과 근로자, 나아가 도민들의 삶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자치도가 최근 유관 기관과 함께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지원과 판로 확대, 업종별 수출역량 강화 등 올해 시행된 관세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추진 전략으로 공급망 다각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설정했다. 특히 미래차 부품 전환과 대체부품 개발 같은 산업 구조 고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이 자동차, 조선, 농식품이라는 전통 주력산업에만 매달려서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 시장 다변화와 신산업 발굴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에도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관세 협상은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무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밀착 지원하는 일이다. 전북도가 수출바우처 확대, 긴급 금융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내세운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전북을 비롯한 지역 경제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리한 관세 인상을 수용하는 순간, 수출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지역 일자리는 위협받는다.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산업 경쟁력을 구축하는 일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전북의 경우, 단기적 금융지원보다 장기적 구조 전환이 절실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이 다. 전북의 대응반 활동이 타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특례보증·비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책이 실제 기업에 닿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세율 몇 퍼센트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존폐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전북의 수출기업들이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국가적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화재열전



선운사영산전목조삼존불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불교조각, 목조, 불상
-지정일 - 1973년 6월 23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고창군 선운사로 250 (아산면)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년 9월 23일 화요일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원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8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전북의 언론”

전북 Times



민생에 온기, 성장에 활력 정읍 '상생 모델' 주목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일자리지원센터·청년지원센터 운영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민 중심의 담대한 변화’를 기치로 달려온 민선 8기 정읍시가 이제는 시민의 삶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가동하며 순항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쌓아 올린 신뢰와 혁신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제는 일자리, 민생경제, 에너지 복지, 도시 인프라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나열을 넘어, 공급과 수요를 잇는 일자리 매칭,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산업 생태계 구축 등 각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정읍형 선순환 발전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사람 중심의 총출발 그물망, 일자리부터 소상공인까지 민생을 다잡다

정읍시 민생 정책의 핵심은 ‘사람’에 있다. 시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지역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400억원 증액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추석 명절과 맞물린 9월부터는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개인별 구매 및 보유 한도(월 100만원, 보유 200만원)를 늘리는 등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소비 심리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여기에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는 배달비 할인,페이백, 소비쿠폰 지급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으로 시민의 호응을 얻으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이끄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인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 매출 1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4000명에게 50만원씩, 총 20억원을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를 창출했다.

일자리 정책은 공급과 수요를 정교하게 연결하는 ‘맞춤형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정읍시 일자리창출위원회’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인 기업(294개)과 구직자(2790명)의 상세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취업박람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등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24명의 소중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투자는 더욱 과감하고 세심해졌다.

지난 3월 수성동으로 확대 이전한 ‘청년지원센터’는 넓고 쾌적한 소통·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대학 미진학 청년 구직지원금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 취업의 문턱을 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청년월세 사업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정읍으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최대 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까지 시행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마중물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래를 여는 담대한 설계, 신산업 육성과 균형 잡힌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다

정읍시는 현재의 민생을 돌보는 동시에, 미래 100년을 책임질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구 지정과 체계적인 기업 지원 모델 구축, 시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인프라 확충이 바로 그것이다.

정읍의 미래 전략산업 육성 전략은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6월 바이오 및 동물의약품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올해 2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연장은 기업 유치의 기폭제가 됐다.

이를 통해 이미 1개의 앵커기업과 7개의 협력기업 입주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신정동과 입암면 일원에 3476억원을 투입해 약 56만 평 규모의 ‘RE100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담대한 도전에 나섰다. 이는 지역 특화 자원인 첨단 바이오, 방사선 기술을 정부의 RE100 정책과 결합해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이다.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기업이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다. 정읍시는 창업 초기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기업의 입주·창업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36개의 초기 창업기업이 입주해 있고, 전문투자사 중심의 코워킹스페이스를 조성해 올해 상반기 9개 기업을 발굴·유치했다.

또 성장기 기업을 위한 농축산물 미생물 공유 인프라(40실)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60실, 2029년 입주 목표) 등 임대형 창업 공간 100실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연구개발특구본부, 테크노파크 등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지원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투자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의 높은 애로사항 처리율(87%)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 9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로 입증되고 있다.

도시의 품격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3개년에 걸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공급배관과 인입배관 공사를 효율적으로 전환해 15년 이상 걸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시와 공급사가 비용을 분담해 주민 부담을 대폭 낮춤으로써 연료비 절감과 생활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균형발전 또한 정읍시가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올 11월 △미디어 교육과 창작 공간인 ‘메이플플랫폼’ △역사와 휴식이 공존하는 ‘작은 역사공원’ △소규모 공영장과 음악도서관을 갖춘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준공으로 마무리되면, 쇠퇴했던 구도심은 새로운 문화·경제 활력의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동시에 농촌 지역에는 7개 면에 240억원을 투입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6개 마을에 30억원을 투입하는 ‘마을만들기사업’을 본격 추진해 문화·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